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민 성 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자연의 생명성에 관한 인체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이 명 옥

자연의 생명성에 관한 인체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민 성 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이 명 옥

인 준 서

이명옥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끝없이 넓은 우주 공간과 무수한 시간의 흐름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작고 왜소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사는 삶이 의미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물음을 나 자신보다는 한발짝 떨어져서 관조자의 입장이 되어 자연의 생명성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인간 존재의 삶을 비추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며 인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인체는 자연과 소통하는데 있어서 그 매개체가 되며, 표현의 주체가 된다. 작품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상(象)에서 그 이면에 깃든 의미를 연상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으로, 표현의 주체와 관조자의 시선으로 진행하였다.

자연은 보여지는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존재의 본질이 내재되어 있다.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로서 생성과 소멸의 순환과정과 다양하게 변해가는 자연의 질서를 알게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본인은 이와같이 자연에서 바라본 이미지들을 인체를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동질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속에서 존재의 삶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하였다.

서론에서는 자연의 생명성을 주제로 한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및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본론 1절에서는 본인 작품의 이론적 배경으로 시간의 변화에 안존하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장자(莊子)’의 사상을 토대로 하여 자연의 순환과 변화속에

깃든 인간의 염원과 존재의 의미를 알아보고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실체의 형상과 마음으로 느끼는 형상을 ‘노자(老子)’가 말하는 유무상생(有無相生)과 허실상자(虛實相資)를 이론적 근거로 서술하였다.

2절에서는 본인 작품의 조형적 특징을 인체로 표현한 의미를 서술하고, 인체의 다양한 동세와 표정을 통해서 자연의 생명성을 표현하였으며, 철사의 유연함으로 형태를 이루는 인체를 속을 채우거나 비우고 일부는 생략하여 자연의 생성과 소멸을 표현하고 그 이면에 깃든 사유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3절에서는 본인의 작품분석으로, 작품을 다시 살펴보고 작품의 제작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본 연구를 토대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작품제작에 있어서 더욱 발전적인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
II. 본론	3
1. 이론적 배경	3
1) 자연의 순환과 변화	3
2) 마음의 형상과 실체의 형상	7
2. 조형적 특징	11
1) 인체로 표현된 자연의 생명성	11
2) 철사로 표현된 생성과 소멸	15
3. 작품 분석	19
III. 결론	39

참고 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바람의 변주 (Variation of Wind)	19
- 철사·혼합재료 / 100×70×20cm / 2010	
- 철사·혼합재료 / 90×50×60cm / 2010	
- 철사·혼합재료 / 140×42×25cm / 2008	
- F.R.P·혼합재료 / 75×55×36cm / 2010	
- F.R.P·혼합재료 / 60×40×85cm / 2010	
- 알루미늄·철사 / 260×100cm etc / 2009~2010	
- 알루미늄·유리바닥 / 190×190×120cm / 2010	
<작품2> 꽃차례 (Inflorescence)	27
- 철사 / 105×85×60cm etc / 2010	
<작품3> 해거리 (Fallow)	31
- 황동 / 67×65×17cm / 2010	
- 황동 / 95×30×20cm / 2010	
- 황동 / 60×36×15cm / 2010	
- 황동 / 54×48×15cm / 2010	
- 황동 / 47×36×20cm / 2010	
- 황동 / 30×29×15cm / 2010	
<작품4> 별바라기 (Byulbaragi)	36
- 황동 / 45×20×30cm / 2009	

I. 서론

1. 연구 목적

본 논문은 자연을 바라보며 자연의 질서속에 깃든 존재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 속에 내재해 있는 자연의 생명성을 인간의 내면 즉, 나의 감성으로 재구성하여 인체형상을 통해서 표현하고 바라보는 형식으로, 본인의 작품속에서 조형화되는 과정과 특성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본인이 자연을 무심하게 바라보는 것은 단순하게 찾아온 고요가 아니라, 살아오면서 느꼈던 모든 대립된 감정들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있음과 없음)이 끊임없는 내적 갈등으로 나타났고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 사고를 하게 되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존재의 연약함이 내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본인은 이러한 내적갈등을 내 안에서 바로 찾기보다는 한발짝 떨어져서 자연의 생명성이 지닌 다양한 변화와 그 속에서 느껴지는 생명운동의 미묘한 움직임들을 바라보며 인간존재의 삶을 비추어 좀 더 본질에 다가가기로 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자연의 생명성과 그 속에서 느껴지는 존재의 의미를 인체형상을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창조적인 내면의 세계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론 1절에서는 장자(莊子)의 사상을 바탕으로 자연의 순환과 변화속에 깃

든 생명성과 존재의 의미를 알아보고, 작품의 표현에 있어서 실체의 형상과 마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의미를 노자(老子)사상인 유무상생(有無相生)과 허실상자(虛實相資)의 뜻을 서술하여 본인의 작품제작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2절에서는 자연의 생명성을 인체로 표현한 의미와 철사의 엮음으로 형태를 이루는 인체를 생성과 소멸로 표현한 의미를 설명하고, 그 이면에 갖든 사유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3절에서는 본인의 작품분석으로 이론적 배경과 조형적 특징을 토대로 해서, 본인의 작품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제작과정 및 재료와 형태, 작업 형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과정들은 앞으로 나아갈 작품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Ⅱ. 본 론

1. 이론적 배경

1) 자연의 순환과 변화

사계절이 서로 바뀌어 일어나고, 만물이 서로 좇아 생겨나고,
... 음과 양이 서로 조화하고 그 소리는 흐르는 빛과 같다.
(四時迭起, 萬物循生, ... 陰陽調和, 流光其聲. 『장자·天運』)

대자연의 세계에서는 사계절의 운행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질서 정연하다. 구름은 비가 되고, 비는 구름이 되며, 맑게 개이면 반드시 흐리고, 흐리면 반드시 개이듯이 자연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커다란 조화를 유지한다. 초목은 그 조화속에서 생성하고 변화하며, 대자연의 리듬은 아름다움과 찬란함으로 가득차 천지 우주 사이를 운행하고 있다.

자연은 보여지는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나와서 자라고 쇠약해져 사멸하며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며 소멸하는 존재의 본질이 내재되어 있다.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변화하는 일체 존재의 생성, 변화의 흐름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어디서 끝마칠 것인지 알지 못하는 무시(無始)에서 무종(無終)에 이르는 무한한 전개이다. 그것은 인간의 감각과 지각으로도, 인과적 사고로도 질서지을 수 없는 ‘저절로 그러한 작용’으로서 누구도 그 흐름을 멈출 수 없고 누구도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¹⁾

1) 복영광사(福永光司)지음, 『장자』, 이동철, 임현규 옮김, 창계, 1999, p.82, p.177

『장자』의 첫 장 『소요유(逍遙遊)』의 첫 대목은 물고기 “곤”과 큰 새 “붕”의 이야기로, 물고기가 새로 변하여 북쪽 바다에서 남쪽 연못으로 날아갔다는, 장자(莊子)가 지어낸 우화이다. 장자(莊子)²⁾가 논하는 주제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변화(變化)’의 가능성과 그 실현으로서 이것이면서 저것인 세계가 곧 장자(莊子)의 세계이다. 이것과 저것 사이에는 화이위조(化而位鳥)의 화(化)가 있다. 이 부분은 『장자』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서 이것이 저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내재적 질서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변화의 가능성을 타고오르며, 저것으로 화(化)한다. 저것은 본디 이것에서 말미암고 따라서 이것과 저것은 상호작용하며 공존한다.³⁾ 여기서 붕새는 변화의 가능성을 실현한 사람을 말하고, 그 거침없는 비상은 이런 변화나 변혁을 이룬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초월을 상징한다. 이는 인간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이런 변화가 자연과 동떨어진 어떤 초자연적 힘이나 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다 기운이 움직여 물결이 흥흥해지”거나, “회오리바람을 일으켜 그것을 타고”날듯이 모두 자연안에서 그것에 순응하고 힘입어 가능했다는 것이다. 곤과 붕새는 겉으로는 모습을 달리 하지만, 본질을 보면 본래 따로 독립한 사물이 아니라 동일한 것으로⁴⁾ 『장자』는 이부분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변화(變化)의 가능성을 논하며, 그것은 초자연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래적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발현해서 생긴 일임을 말한 것이다.

장자(莊子)는 인간의 삶이란 자연을 벗어나며 긍정적 사고속에서 자유로운 존재의 삶을 영원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동양인들은 만물이 그 외관상의 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평등하다고 여겼는데, 그 까닭은 생

2) 장자(莊子, BC369~BC289) : 중국 고대의 사상가로 도를 천지만물의 근본원리로 보았다.

이는 도는 어떤 대상을 욕구하거나 사유하지 않으며 스스로 자기존재를 성립시키며

절로 움직인다고 보는 범신론이다. 주요 저서로는 『장자』가 있다.

3) 장석주, 『그 많은 느낌은 다 어디로 갔을까』, 뿌리와 이파리, 2008, p.10

4) 오강남 풀이, 『장자』, 현암사, 1999, p.27

사에 대한 동일한 마음과 생명현상의 근원적 동일성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사물의 외관이 보여주는 차별성 보다는 그 너머에 존재하는 생명의 근원적 동일성에 주목한 것이다.⁵⁾ 자연은 인간 역사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함축하고 있고, 인간은 끈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으며 미묘한 생명의 움직임들은 존재인식의 과정이 된다.

삶의 의식은 근본적으로 죽음의 의식이다. 그러므로 존재가 보이게 되는 것은 존재의 부재와 같은 무(無)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 말은 무(無)의 느낌이 없이 존재의 의미가 가시화 될 수 없다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죽음의 의식이 삶의 의식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⁶⁾ 도(道)는 시작과 끝이 없는 순환의 세계이다.

시작이 있으면 그 앞에 아직 시작되지 않음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앞에 아직 시작되지 않음의 이전이 있을 것이다. 있음이
있고 없음이 있으면 그 앞에 있음과 없음의 이전이 있을 것이
고, 또 그 앞에 있음과 없음의 이전의 이전이 있을 것이다.
有始也者. 有未始有始也者. 有未始有夫未始有始也者. 有有也者.
有無也者. 有未始有無也者. 有未始有夫未始有無也者. 『齊物論』⁷⁾

이 구절에 대하여 곽상(郭象, BC252 ~ BC312년경)은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종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앞에 또 아직 시작되지 않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시작도 종말도 없는 순환의 구조속에서 생사(生死)를 하나로 본다는 것과 같다고 언급하였다.⁸⁾

5) 박영택, 『식물성의 사유』, 마음산책, 2003, p.15

6) 김형효, 『메트로 폰티와 에메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6, p.215

7) 안동립 역주, 『장자』 내편 “제물론”, 현암사, 1993, p.69

8) 김형효, 『노장 사상의 해체적 독법』, 청계, 1999, p.343

생명현상이란 식물과 동물의 성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탄생과 성장, 종(種)의 번식과 개체의 죽음이라는 과정 모두를 일컫는다. 개체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생명현상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종(種)이란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의 순환과정인 것이다.⁹⁾

인간과 자연은 서로 순환구조 속에서 사유되며 생명을 이루고 있다. 생명이 하는 선택은 예견 불가능하고, 불확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은 진화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며 변화하고자 하는 경향을 내포하는 ‘잠재성’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인간이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도 이러한 생명의 잠재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¹⁰⁾ 장자(莊子)는 시간의 변화에 안존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지향했는데, 이는 편견을 버리고 자연의 존재론적 동등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자연과 인간을 합일의 시각으로 바라봄이다.

위와 같은 장자의 사상은 본인에게 자연을 이성으로 분석하여 바라보지 않는 사고와,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하였으며 그 속에 동참하려는 의식의 형성은 관조적인 삶의 자세로 변화를 가져와 자연을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대상이 아니라 관계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 이면의 근원적인 것까지 바라보며 이해하고자 하였다.

생명의 본질을 안다는 것은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觀) 한다는 것이고, 모든 드라마가 배제된 상태에서 본다는 것이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체험속에서 “생멸(生滅)이 불생멸(不生滅)”로 형성되는 순간을 산다는 것이다.¹¹⁾ 순환되는 자연의 질서속에서 모든 생명이 그러하듯이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생성되고 소멸하는 하나의 생명체이며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연에서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9) 박영택, 『식물성의 사유』, 마음산책, 2003, p.17

10) 우노구니이치 지음, 『들뢰즈, 유동의 철학』, 이정우, 김동선 옮김, 그린비, 2008, p.43

11) 박영택, 『식물성의 사유』, 마음산책, 2003, p.21, p.24

2) 마음의 형상과 실체의 형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사물과 마주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시각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대상안에 존재하며 또 다른 어떤 것으로 그것의 의미를 이루는 요소들이 있다.¹²⁾ 그것은 대상을 형태로 파악하지 않고 이해하기 위하여 관찰하며, 사물을 바라볼때 형태만 보지말고 사물의 근원을 보고자 노력할 때 알 수 있다.

형태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가시적 존재 이것은 현실적으로 존재의 성질이 물리적 상태일때 가능하다. 질료를 통해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것, 이 질료가 바로 존재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며 현존하게 하고 대상을 물질로 만들어 준다. 하지만 무형의 존재는 다르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형식 원리같은 상대적 존재이며 신체감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물질을 초월한 관념의 형태다. 그렇다면 이것은 존재 하는가? 질료로 구성된 물리적인 존재와는 다르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수학적 법칙이 책이나 논문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러한 무형의 존재는 바람과 같이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지각으로 인지되는 것이 있고, 어떠한 관념에 의해 연상을 일으켜 그것과 관련된 다른 관념으로 떠오르며 존재하는 것이 있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가시적 형태다. 직접 보이지 않지만 간접적인 형태로 우리의 지각에 인지되는 바람은 물체도 아니고 형태도 아니다. 하지만 나무의 흔들림, 빨래의 펄럭임 같은 간접적인 요소를 통해 보이지 않는 바람은 시각화 된다. 이렇듯 무형의 존재가 물리적 형태로 발현되는 현상을 '유형화'라고 하며, 이 '유형화'의 과정을 조형이라고 부른다. 예술가의 이성적인 의도에 의해 보이지 않던 하나의 개념을 형상화

12) 이경희, 『사물에 대한 또 다른 메타포와 일루전으로서의 단면』,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2010, p.9

시키는 것이다.¹³⁾

본인의 작품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바람 또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써의 물체는 아니지만, 선과 선 사이와 공간과 공간 사이를 넘나드는 자유로움으로써 마음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본인의 적극적이고 동적인 움직임이다. 이러한 마음의 형상은 본인의 작품 전체를 아우르며 본인의 실체 형상과 조화를 이룬다.

한 송이 꽃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꽃이 아닌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송이 꽃은 비와 바람, 햇빛과 공기, 흙과 거름 그리고 시간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속 깊이 들여다보면 그 꽃이 지금 거름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임을 깨닫게 된다. 반대로 거름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름 역시 꽃이 되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여지는 한 송이 꽃에서 꽃과 거름이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¹⁴⁾

본인은 위와같은 자연의 생명현상을 유형화하여 인체형상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피고지는 생명현상을 생성과 소멸로 보았고, 철사의 엮음으로 이루어지는 인체표현은 생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동세의 꽃들과 속을 비우거나 부분부분을 생략하여 소멸을 상징하는 꽃들, 그 속에서 변화를 느끼며 꽃으로 동화되어 가는 인체의 모습과 별을 그리는 존재의 염원 등으로 표현하여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의미까지 보고자 하였다.

무엇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사물의 외형에 나타나는 보여지는 부분만을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의 지각현상은 지각대상의 모든 측면을 동시에 다 보지 못하지만 안보이는 측면도 보이는 현전의 부재로서 간주하고, 이 부재의 측면도 가능한 측면들의 한 면임을 이해한다.¹⁵⁾

13) 한명식, 『예술을 읽는 9가지 시선』, 청아출판사, 2011, p.266, p.268

14) 틱낫한, 『마음을 멈추고 다만 바라보라』, 류시화 옮김, 꿈꾸는 돌, 2002, p.44

15) 김형효, 『메트로 폰티와 애매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6, p.48

노자¹⁶⁾는 현상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무(無의) 유용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서른 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을 공유하는데 그 비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수레의 쓰임이 있다. 찰흙을 반죽하여 그릇을 만드는데 그 비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릇의 쓰임이 있다. 방문과 창문을 뚫어서 방을 만드는데 그 비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방의 쓰임이 있다. 그러므로 채우니 이익이 되고 비우니 쓰임이 된다.

三十輻，共一轂，當其無，有車之用。埴埴以爲器，當其無，有器之用。鑿戶牖以爲室，當其無，有室之用。故有之以爲利，無之以爲用。¹⁷⁾

서른 개의 바퀴살이 서로 물린 이후에 하나의 바퀴통을 이루고, 바퀴통에 허공이 있어야 수레가 공능을 가지게 된다. 만일 바퀴살 실(實)이 없다면 바퀴통의 허(虛)도 없고, 바퀴살의 허가 없다면 바퀴도 쓸모가 없게 되어서 결국 수레는 무용한 것이 된다. 이렇듯 모든 물건의 유용성은 무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유는 무의 매개에 의해서만 비로소 존립할 수 있다. 그래서 노자는 모든 물건에 유용성이 있는 것은 무가 그 유용성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다. 어떤 사물에 허가 없이 실만 있고, 무가 없이 유만 있다면 그 사물은 그 작용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본질을 잃어버린다. 노자가 말한 유무상생은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는 명제이다.¹⁸⁾

노자는 물체와 공간은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동시에 존재하며 천지간의 사물을 모두 유(실체)와 무(허공)의 통일체라고 이해하였다. 그런데 일반인은 유

16) 노자(老子, ?~?) : 중국 고대의 철학자이며 도가의 창시자로 주요 저서로는 『노자』가 있는데, 『도덕경』이라고도 하며 도가사상의 효시로 일컬어진다.

17) 『노자 도덕경』, 김태완 번역, 무심선원, 2006, p.10

18) 조민환, 『중국 철학과 예술정신』, 예문서원, 1997, p.148

의 작용에는 주의하면서도 공허의 작용은 홀시한다. 그래서 노자는 유와 무가 상호 의존하고 상보적임을 밝혀 무의 작용을 강조한다. 노자는 허실상자(虛實相資)를 말하여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상에 얽매이는 것을 경고하고 모든 사물이 대대(待對)¹⁹⁾관계를 형성하여 상호 보충하고 상호 발휘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유는 회화 예술론에서는 그려지지 않은 그림(不劃之畫)을 말하는 미의식으로 나타난다. 회화 예술에서는 그려지지 않은 그림으로서의 여백은 작품의 미완성 부분이 아니라 완전한 작품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단순한 공무(空無)로서의 여백이 아니라 그 속은 비어 있지만 만물을 생성하는 원기가 계속하여 나온다(虛而不屈)는 의미로서의 여백이다. 여백을 통하여 무한한 예술 이상을 표현하고 무한한 심상(心象)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허가 실이라는 것에 바탕한 것으로 노자의 철학 사상은 결국 허와 실이 결합하여야 비로소 진실되게 생명이 있는 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는 미의식을 낳았다.²⁰⁾

위와 같은 사유와 미의식은 본인이 조형적인 작품을 만드는데도 같은 원리로 작용하여 작품 사이사이를 넘나드는 바람과 나비채의 크고 작은 구멍 사이를 들랑거리는 나비의 움직임 느낄 수 있으며 생성에서는 소멸을 인지하고, 소멸에서는 다시 생성하는 기운을 바라본다. 즉, 실체의 형상에서 그 이면에 깃든 의미를 연상하여 바라볼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움직임 또한 마음의 형상으로써 느낄 수 있는 것이다.

19) 대대(待對) : 두가지 것이 상대적으로 작용하는 것. (불교대사전 p.420)

20) 조민환, 『중국 철학과 예술정신』, 예문서원, 1997, p.148~149, p.151

2. 조형적 특징

1) 인체로 표현된 자연의 생명성

본인은 자연을 바라보며 자연은 변화속에서 생성과 소멸하며 순환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거대하고 방대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뜰에서 아무도 모르게 피었다 지는 작은 들꽃들과 그 위를 나폴 거리는 나비들, 그리고 저 스스로 몸살을 앓다 스스로 치유하는 나무들과 어둠 속에서 존재를 드러내며 세상을 밝히려는 작은 별들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본인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뜰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작품1>에서 유리 바닥 밑에 여러 가지 꽃을 설치하였는데, 그것은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자연이 거대하거나 방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집앞에 뜰이나 화단을 의미했으며 설치된 꽃은 화려하거나 커다란 꽃보다는 작고 수수한 중간색 이미지의 꽃들로 설치하였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나비채는 나비를 잡고자 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비의 들랑거림을 보고자 하는 형상으로써, 걸쳐놓고 한발짝 떨어져서 변화하는 물체를 바라보고자 하는 관조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본인은 뜰에서 바라본 아주 작고 미미한 생물들에서도 거대한 생명의 신비가 살아있으며 소소한 일상으로부터 존재의 의미가 다가오는 것을 꽃과 나비, 바람과 별 등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자크 마리탱²¹⁾은 「예술과 시의 창조적 직관」을 통해 창조활동의 본질은 “자기”와 “대상”의 뒤섞임 즉, 인간정신과 외계의 자연이 서로 관련을 맺는

21) 자크 마리탱(Jacques Maritain, 1882~1973)

: 프랑스의 철학자로 신토머스주의 철학의 대표자이며, 베르그송과 드리시 등의 ‘생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저서로는 『베르그송의 철학』이 있다.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였다. 본인이 인체를 통해 자연의 생명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인간의 내면상태를 표현하는데는 의식의 주체인 인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고 그 안에서 표현되는 무언의 몸짓은 신체가 가지는 다양한 행위들을 통해 자연의 심상적인 표현을 드러내며, 그것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설득력이 있어서 잔잔한 내면의 울림을 주기 때문이다.

인체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술의 한 형식으로써 몸으로 표현하는 언어는 인간의 내적 외적으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은 자연의 생명성을 여성의 인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였고, 인체 표현의 구성적인 면에서는 생성과 소멸을 나타내는 속을 채운 인체와 속을 비우거나 신체의 일부를 생략한 인체, 그리고 꽃으로 동화되어 가는 모습인 “꽃으로 동화된 인체” 세가지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인체는 다양한 동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표정이나 심리상태를 표현 할 수 있다. 본인은 뜰에 피어있는 여러 가지 꽃들의 표현으로 <작품1>에서는 누워 있거나 엎드려있고 웅크리거나 앉아있으며 서서 등을 구부린 자세 등을 바닥에 자유롭게 설치하였다.

누워있는 자세와 앉아있는 자세, 그리고 엎드려 있는 자세는 생성의 의미인 피어있는 꽃을 상징하며 꽃이 피는 과정인 시간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철사를 엮어서 속을 겹겹이 채워서 표현하였다. 나를 드러내며 누워있는 자세는 활짝 핀 꽃을 상징하며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어올리고 편안하게 널부러져 있는것 같지만, 다리 부분만 접어서 붙이고 한쪽 엉덩이 부분을 뒤틀어서 들고 있는 모습은 꽃이 만개한 후에 서서히 시들어가는 모습이 일부분 들어있음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며 앉아있는 자세는 꽃이 활짝 피었다가 시드는 과정중 중간정도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반쯤 오므려 있는 꽃의 표현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한쪽 팔에 힘을 의지하여 허리를 뒤틀고 반대쪽에 있는 손을 응시하

는 것은 무심의 상태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한쪽 팔에 머리를 기댄채 엎드려 있는 자세는 만개한 후에 시드는 과정의 꽃으로 땅에 엎드려서 흙과 동질화 되어가는 생성의 꽃으로 표현하였다. 꽃으로 동화되어가는 인체는 자연과 인간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표면에 꽃문양을 넣어 자연과 나와의 동화된 모습을 표현하였고 꽃문양은 바닥에 설치한 꽃처럼 중간색의 이미지로 표현하여 수수함을 나타내하고자 하였다. 머리를 땅에 대고 두 손과 두 다리는 접어서 오므리고 등을 굽혀서 최대한 웅크린 자세는 태아의 자세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며, 서서 등을 구부리고 두 팔을 다리에 의지하여 자신의 자궁을 들여다보는 자세 또한 생명의 의미인 잉태를 암시하는 것으로 자연의 생명성을 담고자 하였다.

피어있는 꽃에서는 서서히 시들어가는 모습을 감지하고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느끼는 모습에서는 또 다른 생명을 표현하여 하나의 형상에서 그 이면에 깃든 모습을 보고자 하였으며, 여러 가지 동세표현으로 자연의 순환인 시간성을 나타내하고자 하였다.

<작품2> 꽃차례는 소멸의 의미를 나타내는 꽃으로 철사를 이용해서 얇게 형태를 만들어 속이 보이게 인체를 표현하였으며, 역설적으로 다시 꽃이 피는 과정을 나타내하고자 하였다. 인체 하나 하나를 꽃잎의 형태로 설정하여 하나의 좌대에서 똑같은 형태를 지닌 인체 셋이 두 손을 땅바닥에 기대어 다리를 벌리고 있고, 서로 등을 기대고 철푸덕 주저앉아서 자신의 자궁을 들여다 본다는 것은 속이 비어있지만 생성의 기운을 나타내하고자 함이며 철푸덕 주저앉아 있는 인체를 일정 간격 띄워 올려서 표현한 것은, 비어있지만 꽃잎이 생성함을 나타내하고자 함이다. 구석에 설치된 반쪽의 인체형상은 떨어진 꽃잎을 나타내며 생명의 흐름속에 보여지는 시간성을 말하고자 하였다.

<작품3> 해거리는 자연의 순환속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변화로 꽃눈이 분화

되지 못하고 겨우 열린 작은 열매들도 우수수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떨어진 꽃눈이나 열매를 표현하였으며 일시적인 소멸로 간주하여 속을 비우거나 신체의 일부를 생략하여 부족함이 있는 인체로 표현하였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분화되지 못한 꽃눈을 보듬고자 따뜻한 느낌의 노란색 철사로 만들어서 벽면에 설치하여 생성하는 기운을 보고자 하였다. 인체표현으로서는 부족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인체를 반으로 나누거나 부분적으로 생략하였고, 몸체를 표현할 때는 일부는 겹치고 일부는 겹치지 않게 만들어 벽면에 설치했을때 강약의 실루엣을 이룰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작품4> 별바라기는 별을 그리는 인간의 염원과 존재의 연약함속에서 생명의 잉태를 알리는 표현으로써 별 또한 하늘의 꽃이라 불리며 인간처럼 탄생하여 살다가 빛을 잃어가며 소멸하고 그 잔해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생성과 소멸의 반복이 인간의 삶과 다르지 않다.

본인은 별의 느낌을 주고자 노란색 철사를 사용했으며 작게 만들어 고개를 돌려 저쪽을 바라보는 것은 존재의 연약함과 인간의 염원을 나타내고 속이 채워진 인체로 표현된 것은 생성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곧 사라짐을 의미하며 태아의 자세로 웅크린 모습은 또 다른 생명의 탄생을 의미한다. 본인은 뜰에서 바라본 자연의 생명성을 인체의 여러가지 동세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였는데, 이들 자세는 겉으로는 편해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자세를 취했을때는 편치않은 자세이며 이것은 자연과 인간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으로서 존재의 삶이 녹록치 않음을 표현한 것이고, 비어있지만 자궁을 응시하고 채워있지만 소멸을 나타내는 표현은 생성과 소멸의 반복속에 순환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자연을 돌아보는 것은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로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며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2) 철사로 표현된 생성과 소멸

본인은 자연을 바라보며 인간과 자연은 서로 순환구조 속에서 사유되며 생명을 이룬다는 것을 알았고, 생성과 소멸의 반복속에 생사(生死) 또한 시작과 종말이 없는 하나로 본다는 것을 알았다. 한송이 꽃에는 꽃과 거름이 함께 존재하고 유(有)와 무(無)는 상호 의존하며 허(虛)와 실(實)이 결합하여야 비로소 진실된 생명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이에 본인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생명현상을 실체의 형상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생성과 소멸을 구분 짓는 두가지 표현방식을 생각하였다.

하나의 형태는 한가닥의 철사로부터 시작하여 끊어지지 않게 엮어서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존재의 삶을 이루는 시간성을 나타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쌓여서 볼륨을 이루고 저마다의 동세표현은 피어있는 꽃으로 표현되었다.

또 다른 하나의 형태 역시 한가닥의 철사로부터 시작하지만 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얇게 표면을 만들어서 속을 비우거나 신체의 일부분들을 생략하여 소멸의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위와같이 생성과 소멸을 나타내는 인체표현은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결되는 과정과 여운으로 생각하여 속이 채워진 인체에서는 선과 선의 반복된 집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시간의 집적을 나타냈으나 오히려 그 이면에 소진되어 가는 모습을 보려했고, 가는 선으로 표면을 형상화한 속이 비워진 인체와 부분적으로 생략된 인체에서는 속이 텅 비어 소진되어 보이지만 다시 생성하는 기운을 보고자 하였다.

인간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주와 더불어 변해간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재료에 있어서 철사를 선택한 이유도 가늘지

만 견고하고, 유연하지만 강성이 있는 철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철사는 입체 표현에 있어서 주로 뼈대로 이용되거나 보조재료로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로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어 왔다. 본인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어느 장소에서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철사는 소박하고, 자유롭게 변형되어 쉽게 다룰 수 있어서 본인의 작품을 만드는데 적합하여 주재료로 선택하였다. 만드는 과정에서 많이 다루는 용접기술은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선과 선이 끊어져 이어 붙여야 하고 가는 선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스스로 새로운 표현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작품1>에서는 인체의 엷드리거나 누워있고, 앉아있는 자세를 통해 생성하는 모습으로 뜰에 핀 꽃들을 표현하였고, <작품4>에서는 별을 그리는 인간의 이미지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간주하여 생성의 의미로 표현하였다. 위의 작품들은 선과 선을 엮어서 흠으로 소조하듯이 엮은 것으로 본인은 평소에 흠으로 인체를 소조하면서 흠으로 만들어서 석고를 뜨고 폴리작업하는 과정이 까다로워서 그러한 과정없이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철사를 엮어서 흠으로 소조하듯이 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작품의 몸통부분이나 넓은 면적들은 겹을 이루며 양감을 주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지만 비교적 만들기는 어렵지 않았으며 얼굴과 손, 발 등 디테일을 요하는 부분들은 만들기가 까다로웠다. 특히 <작품4> 별바라기는 엷드려있는 작은 인체라서 얼굴의 표정과 접혀있는 배부분이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 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힘들게 이뤄지는 생성의 의미를 느꼈고,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보여지는 형상으로만 말할 수 없는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시간들이 깃들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

생성의 과정은 엷히고 설킨 선과 선을 덧대어서 겹을 이루고, 그 위에 또

덧대어서 겹을 이루는 과정들로써 시간성을 나타내며 주어진 시간속에 채워나가고자 하는 존재의 삶을 말하고 있다. 일상의 시간이 내면화되어 과거를 회상하게 하고, 미래를 예상하게 할 때 관조의 시간이 된다. 이는 사물의 외양과 그 본질이 서로 만나는 시간이요 사물과 인간 정신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다. 예술의 출발점은 일상적 삶의 시간이지만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자유와 상상력을 통해 그것을 벗어난다²²⁾.

선과 선의 얽힘이 겹을 이뤄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본인은 채워진 인체의 모습에서 소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 까닭은 무수한 선의 덧댐 속에서도 뼈죽이 보이는 “틈”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다가올 소멸의 모습으로써 생성의 또 다른 이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작품2>와 <작품3>에서는 소멸을 뜻하는 인체를 표현하였는데, 속을 비우거나 신체가 부분부분 생략된 인체는 가는 선과 선의 엮임으로 최대한 얇게 엮어서 속이 비어있게 표현하여 소멸을 뜻하는 없음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고 형태를 이루는 얇은 겉틀은 또 다른 이면인 있음이 생성하기 위하여 의지하는 틀이 되었다.

<작품2> 꽃차례는 꽃이 피는 순서를 말하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형태는 보이지만 속으로 사그러드는 소멸을 나타내며 속을 비운 인체에서 다시 생성하는 의미를 보고자 하였고, 구석에 설치된 반쪽의 인체표현은 떨어진 꽃잎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명의 시간성과 생성과 소멸의 순환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가는 철사로 뼈대없이 속이 비어있게 표현한 <작품2>는 작품 크기가 작지 않아서 어느 한쪽에 무게가 쏠리거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구겨지거나 몸체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고르게 선과 선을 엮는 과정이 실제로 많은 시간을 필

22) 김광명, 『삶의 해석과 미학』, 문화사랑, 1996, p.230

요로 했으며, 본인 또한 작품을 만들면서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 되었다.

<작품3> 해거리는 생명의 성장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소멸의 현상으로 없음의 의미를 표현하였는데, 따뜻함과 생성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노란색 철사로 선택하였으며 꽃눈이 분화되지 못한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분부분을 나누거나 생략하였고, 몸통 표현에서는 철사의 엮임을 부분은 겹치게 하고, 부분은 겹치지 않게 표현하여 벽면에 설치했을때 음영의 질고 열음이 나타나게 만들어 드로잉 느낌이 나도록 하였으며 꽃잎의 형태로 자유롭게 설치하였다.

서양의 존재론적인 차원에서의 없음은 그냥 없는 것으로 전형화 되지만 동양의 무(無)는 단순히 무엇이 없는 차원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제된 없음이다. 일종의 빈자리다. 있기 위해 비워둔 자리, 그것은 언제라도 다시 채워질 수 있는 없음이다. 그래서 이 없음은 창조의 에너지 원으로써 새로운 생성을 부추긴다고 보았다²³⁾.

존재의 참모습을 인식하려면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두루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생명의 미묘한 움직임들은 고요한 가운데 변화하며 존재하기에 마주하는 생성과 소멸은 그 변화속에서 순환하며 반복한다. 자연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바라봄은 자연과 소통함으로써 나의 존재를 확인하며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는 과정이 되었다.

23) 한명식, 『예술을 읽는 9가지 시선』, 청아출판사, 2011, p.26

3. 작품분석



<작품 1> 바람의 변주 (variation of wind)



<작품 1-1> 바람의 변주 (90×50×60cm)



<작품 1-2> 바람의 변주 (100×70×20cm)



<작품 1-3> 바람의 변주 (140×42×25cm)



<작품 1-4> 바람의 변주 (75×55×36cm)



<작품 1-5> 바람의 변주 (60×40×85cm)

<작품 1> 바람의 변주 (variation of wind)

크 기 : 나비채 형상 269 × 100cm etc.
인체 형상 140 × 42 × 25cm etc.
유리 바닥 190 × 190 × 120cm

재 료 : 알루미늄, 철사, 혼합재료

제작년도 : 2008, 2009~2010년

[제작방법]

- 1) 나비채 형상은 철사 또는 알루미늄으로 엮어서 고리를 형성한다.
- 2) 철사로 만든 인체형상은 기본 뼈대를 만들어서 직조하는 방법으로 철사를 엮어서 덧대는 방식으로 채워나갔다.
- 3) 혼합재료로 만든 인체 형상은 흙으로 만든 다음, 석고로 떠서 폴리작업을 한다.
- 4) 꽃그림 프린팅 한 것을 붙인 다음 마감재로 마무리한다.

[작품설명]

작품 “바람의 변주”는 뜰에서 바라본 이미지를 설치한 작품으로 꽃과 나비, 바람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바라보는 것으로써 천장에 걸쳐져 있는 나비채 형상과 꽃을 상징하는 인체형상, 그리고 그 주위를 넘나드는 바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걸쳐놓고 바라보고자 하는 나비채 형상은 고리고리 엮어서 크고 작은 구멍의 형태로 망을 만들어 나비가 드나듦을 연상하는 것으로 존재의 항상 변화하는 특성을 떨어져서 바라본다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꽃을 상징하는 인체 형상에서는 채워진 인체와 꽃으로 동화되어 가는 인체로 구분하여 채워진 인체에서는 선과 선의 반복된 집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시간의 집적을 나타냈으나, 오히려 그 이면에 소진되어가는 모습을 보려했고 꽃으로 동화되어 가는 인체는 자연과 나와의 교감으로 표면에 꽃문양을 넣어 서로 동화되어 가는 인체형상을 표현하였다.

제각각 아무렇게나 설치된 듯한 채워진 인체와 꽃으로 동화되어가는 인체형상들은 등을 구부리고 서 있거나, 앉아있고, 누워있거나 엎드려 있으며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데, 이는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 이름모를 꽃들의 표현이며, 무엇을 응시하거나 사유하는 듯한 표정들은 나를 찾고자 하는 바람이다.

작품속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바람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써의 물체가 아니고 나비채의 구멍 사이사이와 꽃들로 표현된 인체의 선과 선 사이, 크게는 공간과 공간 사이를 넘나드는 자유로움을 마음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본인의 적극적이고 동적인 움직임이다.

자연은 인간이 두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가시적인 현상의 세계와 더불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현상을 포함하여 언제나 끊임없는 변화와 반복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아가 타자와의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과 소통을 시도한다. 존재하기에 마주하는 생성과 소멸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미미한 존재인 그들은 비움과 채움을 반복하며 끊임없는 생명의 순환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작품 2> 꽃차례 (Inflorescence)



<작품 2> 꽃차례 (Inflorescence)

<작품 2> 꽃차례 (Inflorescence)

크 기 : 105 × 85 × 60cm etc.

재 료 : 철사

제작년도 : 2010년

[제작방법]

- 1) 인체 형상을 흙으로 만든다.
- 2) 틀을 떠서 틀의 안과 밖을 이용하여 철사를 지그재그로 엮어서 두드리는 방식을 취한다.

[작품설명]

“꽃차례”는 꽃이 피는 모양 또는 꽃이 꽃대에 붙는 순서를 의미하며 꽃이 피는 시간순서와 꽃의 형태를 결정짓는다는 뜻이라고 한다.

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의 존재이다. 다투듯 피어나는 꽃들은 두서없어 보이나 어느것 하나 그냥 함부로 피어나지 않는다. 깊지도 알지도 않게 묻힌 씨앗들은 떡잎 몇 장에 화려하게 피어나는 것이 아니고, 비 한 번 맞고 매서운 추위가 다녀가면 다시 또 비를 맞고, 해와 달을 맞이하며 별을 바라보고 잎사이로 살랑이는 바람을 느끼며 꽃을 피우고 또 꽃은 진다. 어디서 왔는지 모를 꽃들이 싹을 틔우고 꽃이 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그 속에 가고 오는 것과 비워지고 채워짐이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작품 “꽃차례”는 꽃이 피는 순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선과 선으로 엮어서 얇은 피막을 형성하듯이 형태를 만들어 속이 비어있음을 표현하였다. 몸에 힘을 빼고 철푸덕 주저앉아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자궁을 응시하는 자세는 어머니

의 자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어 있지만 다시 잉태하는 생성과 소멸의 순환을 나타낸다. 똑같은 인체형상을 셋을 배치한 것은 꽃잎의 형태로써 우주의 질서를 나타내며 떨어진 꽃잎을 표현한 반쪽의 인체형상은 우주의 질서속에 흐르는 시간을, 즉 생성에서 소멸로 가는 과정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속이 비어있음은 소진된 것을 의미하지만 오히려 생성의 의미를 바라보고자 하였다. 즉 얇은 겉틀을 통해서 보이는 비어있는 속은 일시적인 소멸이며 그 겉틀은 또 다른 생성을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사물은 정지해 움직이지 않은 듯 보이지만, 그치지 않고 살아 숨쉬며 성장과 소멸의 순환 원리를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꽃은 가장 가까이에서 우주를 느끼게 해주는 보편적 존재인 것이다.



<작품 3> 해거리 (Fallow)



<작품 3-1> 헤거리 (60×36×15cm)
(67×65×17cm)



<작품 3> 해거리 (95×30×20cm etc)

<작품 3> 해거리 (Fallow)

크 기 : 95 × 30 × 20cm etc.

재 료 : 황동

제작년도 : 2010년

[제작방법]

- 1) 작은 작품들은 틀없이 직조를 하였다.
- 2) 큰 작품들은 흙으로 만든 다음, 틀의 안과 밖을 이용해서 두드리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작품설명]

식물의 변화는 긴 시간동안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그 생명활동은 계절에 따라 되풀이 되는데 감나무가 애써 만든 열매들을 푹푹 떨어뜨리고 있다. 감나무가 해거리를 하는가 보다.

해거리란 한해를 거름 또는 그런 간격을 뜻하는데, 식물의 해거리는 어느 해에는 현저히 적게 또는 전혀 열매를 맺지 않는 현상으로 늘 같은 장소에서 영양분을 얻어야 하는 속성 때문에 때론 특정 영양소가 결핍되어 일어난다. 식물은 자신의 에너지를 생육과 번식에 할당하는데, 해거리는 훗날 더 큰 번식을 위해 생육에 무게가 쏠리는 현상이라고 한다.

작품 “해거리”는 식물의 생성, 성장, 소멸을 반복하며 순환하는 가운데 잠시 한발짝 떨어져서 자기를 바라보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인간도 저마다 내용은 다르겠지만 그런 시기가 찾아오는 것 같다.

표현 방법으로는 인체의 부분 부분을 조각내기도 하고 일부분은 생략해서

존재의 결핍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해거리는 일시적인 멈춤이지만 시각적인 소진을 나타내기 위해서 속이 비어있게 만들었고, 부분부분 부족한 인체들은 크기와 모습 또한 다 다르게 표현하였지만, 부족한 부분끼리 모여서 꽃을 이루는 형태로 따뜻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표현하였다.

나무를 표현함에 있어서 흔히 “정중동”이라는 표현을 쓴다. 겉으로 움직임 하나없이 고요하지만 안으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행한다는 말이다.

해거리는 겉으로는 멈추어 있는듯 보이지만, 또다른 생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내적인 ‘응시’인 것이다.



<작품 4> 별바라기 (Byulbaragi)

4) 별바라기 (Byulbaragi)

크 기 : 45 × 20 × 30cm

재 료 : 황동

제작년도 : 2009년

[제작방법]

1) 뼈대를 만들어서 직조하는 방식이며 선과 선을 엮어서 덧대는 방식으로 채워 나갔다.

[작품설명]

별은 하늘의 꽃이라고 한다. 밤하늘의 별과 별 사이 어두운 공간 너머에도 수많은 별들이 숨어있다고 한다. 미지의 세계인 별은 인간의 상상력을 일깨우는 알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 친밀하지만 무한하고 어두우면서도 밝고, 가깝지만 달려가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본인에게 별은 동경의 대상이며 인간을 순수하게 만들어 나를 돌아보고 반성을 하게하며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작품 ‘별바라기’는 이곳에서 저곳을 바라보는 관조적 자세를 표현한 것으로 존재의 연약함과 동시에 인간의 염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곳에서의 인간의 ‘유한성’과 저곳에서의 별의 ‘무한성’은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내재하므로 인체 형상을 작게(45×20×30cm) 표현하여 인간의 염원을 나타내고자 하였고, 가는 선을 지그재그로 엮어서 덧대고 덧대어서 겹을 이루는 것은 나날(시간)의 삶을 말하며 반복적인 선과 선의 조합은 채워짐을 이루지만, 그 이면의 모습까지 바라보고자 하였다.

엎드려서 등을 굽히고 최대한 몸을 낮추었지만, 발이 몸에 단지 않는 불안전한 자세는 존재의 연약함이고, 고개를 돌려 별을 바라보고자 함은 멀게만 느껴지는 그 곳에 다가가려는 염원이 담긴 최소한의 몸짓이며, 세상이라는 양수속에서 태아의 자세로 웅크린 모습은 또 다른 잉태를 알리는 생명의 순환이다.

Ⅲ. 결 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자연은 조용히 숨쉬며 늘 그 자리에 있다. 겉으로는 고요해 움직이지 않은듯 보이지만, 항상 그치지 않고 살아 숨쉬며 생성하고 소멸한다.

본인은 자연의 미묘한 생명의 움직임들 속에서 인간 존재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변화와 순환하는 모습이 인간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본인은 위와같은 자연의 생명성을 나를 대변하는 인체형상으로 표현하고자 연구주제로 삼고 자연의 생명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동세(누워있는 자세, 앉아있는 자세, 엎드린 자세, 웅크린 자세, 서서 등을 구부린 자세, 잉태를 꿈꾸는 자세, 꽃으로 동화된 인체)의 움직임을 인체형상으로 만들었고 한가지 형상에서 그 이면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신체의 일부분을 드러내거나 감추고 자신의 자궁을 들여다 보거나 웅크려서 보여지는 형상 이면의 모습도 표현하고자 하였다.

생명현상인 생성과 소멸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한가닥 철사를 시작으로 얽히고 설키게 엮어서 차곡차곡 쌓고 덧대어서 시간성을 나타내는 형태를 “생성”으로 표현하였고, 표면을 얇게 처리하여 속을 비우거나 신체의 일부분을 생략하여 사그라짐을 나타낸 형태는 “소멸”로 표현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논하였듯이 한송이 꽃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꽃(생성)과 거름(소멸)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성한다는 것은 곧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멸은 다시 생성의 기운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마음의 현상과 실체의 현상을 통해서 순환하며 반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본인이 자연을 바라보게된 내적 갈등의 대립된 감

정들이나 자연의 순환과정에서 보이는 생성과 소멸들은 언뜻 보기에 대립하고 모순되는 개념 같지만, 순환되며 어울려 서로 의존하는 상관개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연을 바라보며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나를 찾고자 하는 것으로 안으로 침잠하는 물음들을 드러내어 보듬고자 하는 내적 의지의 표명이며, 내가 바라본 자연의 이미지들을 나를 대변하는 인체를 통해서 표현함은 그 자체로 자연과 나와서의 합일점으로써 서로의 존재에 대하여 의미를 둔 것이라 생각했다.

본인이 자연에서 찾고자 했던 존재의 의미란 나를 찾기 위한 인식의 시작부터 자연과의 합일점을 찾으려는 노력과 무한한 가능성속에서 자유를 꿈꾸고 염원하며, ‘지금 여기’를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본인에게 있어서 바람은 본 연구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서 본인의 마음으로부터 사물을 보려는 의지와 찾고자 하는 갈망에 대한 조언이며 삶의 자세에 대한 대답으로써 본인의 작품과 공간 사이를 넘나드는 자유로움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본인 작품의 근원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박영택, 『식물성의 사유』, 마음산책, 2003
- 키스 안셀 피어슨, 『짜트는 생명』, 이정우 옮김, 산해출판, 2005
- 우노구니이치, 『들뢰즈, 유동의 철학』, 이정우, 김동선 옮김, 그린비, 2008
- 다카시나 슈지, 『미의 사색가들』, 김영순 옮김, 학교재, 2005
-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옮김, 민음사, 2004
- 김형효, 『노장 사상의 해체적 독법』, 청계, 1999
- 복영광사(福永光司), 『장자』, 이동철, 임헌규 옮김, 청계, 1999
- 안동림 역주, 『장자』, 현암사, 1993
- 장석주, 『그 많은 느낌은 다 어디로 갔을까』, 뿌리와 이파리, 2008
- 오강남 풀이, 『장자』, 현암사, 1999
- 한명식, 『예술을 읽는 9가지 시선』, 청아출판사, 2011
- 틱낫한, 『마음을 멈추고 다만 바라보라』, 류시화 옮김, 꿈꾸는 돌, 2002
- 김형효, 『메를로 폰티와 애매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6
- 조민환, 『중국 철학과 예술정신』, 예문서원, 1997
- 김광명, 『삶의 해석과 미학』, 문화사랑, 1996

2. 논문 및 정기 간행물

- 『노자 도덕경』, 김태완 번역, 무심선원 교재, 2006
- 이경희, 『사물에 대한 또 다른 메타포와 일루전으로서의 단면』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2010

ABSTRACT

A study on expression of human body about natural life.

Lee Myoung-Ok

Departmen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A human is just a small and thin thing among vast space and numerous time. Where do we come from and where are we going? What is the meaning of life for us? We ask that of oursel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nature and look at the meaning of existence based on human existence, furthermore, to express it through the human body.

The human body is the medium to communicate with nature and is the main agent for this expression.

For expressing the art of work, associating the meaning in the side, it has been processed by expression and view of observer.

Nature has not only seen the beauty but essence of existence over it. Humans also see creation and extinction of the life cycle, the order of a very changeable nature and can look back on her/his life, as a part of nature.

This researcher feels the homogeneity of human and nature because

of expressing the image being seen in nature by human body. In understanding each other, this researcher can have an opportunity to rethink about existence.

This research has been processed as following:

In the introduction, this study has discussed the research purpose, the brief content of research and method about life and existence.

In the first part of body, as a theoretical background of my work, based on a Chinese philosopher, 'Jangja's ideology following the change of time and rational nature, this study understands human's desire and the meaning of existence in the life cycle of nature and change of it.

Also, this study has explained the actual shape in the researcher's work and shape in the mind by another Chinese philosopher, Noja' coexist of nothing and something and combination of nothing and something as a theoretical background.

In the second part of body, it has discussed expressive meaning of the researcher's plastic characteristics of humans.

This research has expressed the nature's life by various movement and expression of human body, making human body creating wire empty or fill in, and it has expressed nature creation and extinction by omitting something, and it has tried to understand grounds in the side.

In the third part of body, by analysis of the researcher's work, it has reviewed and analyzed the process of production and content.

In the conclusion, based on this research it tries to find the potential for development of production of work.